

| 노사정대표자회의_ 4개 의제별위원회 |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비 노동의 미래,
“기회는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한다”

강금봉 전문위원

1. 대표자회의 이후, 각 의제별위원회 준비 내용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 4월 3일 제2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발족하기로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 이후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준비위원회 등을 거쳐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회의체 발족을 위해 과학기술, 기업연구소, IT, 스마트공장, 산업정책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4.4; 4.12; 6.29; 7.10)를 대수 개최하여 의제 및 운영방향을 토론하였다. 또한, 노사정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준비회의(4.19; 4.24)와 준비위원회(5.9; 5.18; 7.7)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부처 주요 동향, 노동계(한국노총)와 경영계(한국경총)의 제안 의제 등을 함께 토론하며, 위원회 명칭, 논의 의제 및 방향, 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방식 등을 확정하였다.

2. 1차 전체회의 주요 내용

위원회는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2018년 7월 20일 오전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위원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전병유 한신대



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각 2명, 정부 3명,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붙임 1, 참조)하여 구성되었다.

이날 발족과 관련하여 전병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과 ‘플랫폼 확산에 따른 불안정한 노동의 확대’는 위협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는 살리고, 위협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위원회에서는 일터 혁신과 지속 가능하고 비전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논의 방향과 의제, 목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논의한 결과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와 위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주요 방향으로 삼기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사전논의 단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주요 범용기술 동인, 산업 및 기술의 적용 현황과 실태, 국내외 정책현황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중점 논의단계에서는 노동의 주요 도전 양상(자동화의 위협과 새로운 일자리의 태동, 플랫폼 노동의 확산), 노사의 일터에서의 대응(일터혁신과

참여증진, 질적 유연성 제고), 정책 및 법·제도적 접근(교육훈련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법 보완) 등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발족 의의 및 목표, 운영방향 등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기간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 많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사정이 함께 모여 새로운 기술의 도전과 위험으로부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일한 회의체로서 발족의 큰 의의가 있다. 위원회의 노사 간 공동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 발굴 및 모델화, 플랫폼 기반의 노동 실태 사례 연구와 정책 지원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향후 디지털 전환으로 가져올 위험적이고, 기회적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성장과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노사정 각 주체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역할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질서 마련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는 논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활성화하고, 토론회,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위원
위원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위원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공석 (참석 전까지,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석)
	경영계	한국경총 대한상의 이준희 한국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정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권용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공익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이문호 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 최병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장
	간사	강금봉 전문위원